



**미술관서 열린 '작은 음악회'**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 주최로 5일 밤 미술관 1층 로비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에서 200여 명의 관객이 회려한 동작의 벨리댄스를 감상하고 있다. 이번 음악회는 시립미술관이 '수요일은 미술관 가는 날'로 정한 후 개최한 첫 행사로, 바리톤 염종호씨와 피아니스트 김현진씨의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작성기자 jrwi@kwangju.co.kr

## 호남 현역의원 절반 '물갈이'

**민주 1차 공천심사, 30% 탈락자는 오늘 윤곽**

통합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되는 호남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의 명단이 이르면 7일께 드러나는 것은 물론 그 범위도 당초 30%를 넘어 많게는 5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공천심사위원회는 1차 공천심사에

서 호남지역 국회의원의 30%를 걸려내고, 예비후보들을 3~4배수로 압축하는 2차 공천심사 과정에서도 일부국회의원들의 추가적인 공천 탈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3~4배수로 압축된 예비 후보들을 대상으로 국민 여론조사 경선이 실시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광주·전남지역 원들의 명단이 밝혀질 예정이다.

공심위가 1차 심사에서 배제되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따로 밝힐지는 미지수지만 예비후보군이 3~4배수로 압축되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전망이다.

특히, 호남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의 물갈이 폭은 당초 예상했던 30% 넘어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호남지역 국회의원 30%가 1차 공천심사에서 예상되는 2차 심사에서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명단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합민주당은 당초 6일 1차 수도권 중심의 단수 후보 47명에 대한 공천

자 명단을 발표하려 했으나 최고위원회의 소집 과정에서 공심위와의 마찰 등에 따라 7일로 연기했다.

공심위가 단수 후보 신청 지역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경합지역과 호남지역 1차 공천 심사에 돌입함에 따라 이르면 7일, 늦어도 8일께에는 공천에서 배제되는 호남지역 국회의원들의 명단이 밝혀질 예정이다.

공심위가 1차 심사에서 배제되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따로 밝힐지는 미지수지만 예비후보군이 3~4배수로 압축되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전망이다.

특히, 호남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의 물갈이 폭은 당초 예상했던 30% 넘어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호남지역 국회의원 30%가 1차 공천심사에서 예상되는 2차 심사에서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명단을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오는 10일까지 2차 심사와 여론조사 경선 등을 마무리 짓기에는 시간이 촉박한데다 최고위와 공심위의 이견 등이 예상되고 있어 최종 공천은 하루나 이를 정도 늦어질 가능성도 크다.

공심위측은 호남권 국회의원들의 물갈이 폭이 경우에 따라 50%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공심위 박경철 홍보간사는 이날 호남권 물갈이와 관련한 인터뷰에서 “호남권 현역의원들을 예외없이 1차 관문에서 30% 탈락시키는 게 확실하고, 이는 목표치 30%가 아니라 아래 심사 대상조차 삼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많게는 50% 가까운 현역 국회의원들의 교체를 예고했다.

한편, 통합민주당이 7일까지 호남권 예비주자군을 3~4배수로 압축, 경선 지역구를 확정한다면 이르면 8일께 예비후보 간의 경선 서약과 함께 국민 여론조사 경선이 이뤄지고 10일께 최종 공천자가 확정될 전망이다.

특히, 호남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의 물갈이 폭은 당초 예상했던 30% 넘어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오는 10일까지 2차 심사와 여론조사 경선 등을 마무리 짓기에는 시간이 촉박한데다 최고위와 공심위의 이견 등이 예상되고 있어 최종 공천은 하루나 이를 정도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김용철 변호사는 6일 김성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이며 나를 국사법으로 처벌하라며 증인 출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편, 통합민주당이 7일까지 호남권 예비주자군을 3~4배수로 압축, 경선 지역구를 확정한다면 이르면 8일께 예비후보 간의 경선 서약과 함께 국민 여론조사 경선이 이뤄지고 10일께 최종 공천자가 확정될 전망이다.

특히, 호남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의 물갈이 폭은 당초 예상했던 30% 넘어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오는 10일까지 2차 심사와 여론조사 경선 등을 마무리 짓기에는 시간이 촉박한데다 최고위와 공심위의 이견 등이 예상되고 있어 최종 공천은 하루나 이를 정도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김용철 변호사는 6일 김성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이며 나를 국사법으로 처벌하라며 증인 출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편, 통합민주당이 7일까지 호남권 예비주자군을 3~4배수로 압축, 경선 지역구를 확정한다면 이르면 8일께 예비후보 간의 경선 서약과 함께 국민 여론조사 경선이 이뤄지고 10일께 최종 공천자가 확정될 전망이다.

특히, 호남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의 물갈이 폭은 당초 예상했던 30% 넘어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김용철 변호사는 6일 김성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이며 나를 국사법으로 처벌하라며 증인 출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그러나 김용철 변호사는 6일 김성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이며 나를 국사법으로 처벌하라며 증인 출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그러나 김용철 변호사는 6일 김성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이며 나를 국사법으로 처벌하라며 증인 출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그러나 김용철 변호사는 6일 김성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이며 나를 국사법으로 처벌하라며 증인 출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그러나 김용철 변호사는 6일 김성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이며 나를 국사법으로 처벌하라며 증인 출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그러나 김용철 변호사는 6일 김성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이며 나를 국사법으로 처벌하라며 증인 출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그러나 김용철 변호사는 6일 김성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이며 나를 국사법으로 처벌하라며 증인 출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그러나 김용철 변호사는 6일 김성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이며 나를 국사법으로 처벌하라며 증인 출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그러나 김용철 변호사는 6일 김성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이며 나를 국사법으로 처벌하라며 증인 출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그러나 김용철 변호사는 6일 김성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이며 나를 국사법으로 처벌하라며 증인 출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그러나 김용철 변호사는 6일 김성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이며 나를 국사법으로 처벌하라며 증인 출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그러나 김용철 변호사는 6일 김성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이며 나를 국사법으로 처벌하라며 증인 출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그러나 김용철 변호사는 6일 김성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이며 나를 국사법으로 처벌하라며 증인 출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그러나 김용철 변호사는 6일 김성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이며 나를 국사법으로 처벌하라며 증인 출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그러나 김용철 변호사는 6일 김성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이며 나를 국사법으로 처벌하라며 증인 출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그러나 김용철 변호사는 6일 김성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이며 나를 국사법으로 처벌하라며 증인 출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그러나 김용철 변호사는 6일 김성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이며 나를 국사법으로 처벌하라며 증인 출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그러나 김용철 변호사는 6일 김성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이며 나를 국사법으로 처벌하라며 증인 출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그러나 김용철 변호사는 6일 김성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이며 나를 국사법으로 처벌하라며 증인 출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그러나 김용철 변호사는 6일 김성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이며 나를 국사법으로 처벌하라며 증인 출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그러나 김용철 변호사는 6일 김성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이며 나를 국사법으로 처벌하라며 증인 출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그러나 김용철 변호사는 6일 김성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이며 나를 국사법으로 처벌하라며 증인 출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그러나 김용철 변호사는 6일 김성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이며 나를 국사법으로 처벌하라며 증인 출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그러나 김용철 변호사는 6일 김성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이며 나를 국사법으로 처벌하라며 증인 출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그러나 김용철 변호사는 6일 김성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이며 나를 국사법으로 처벌하라며 증인 출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그러나 김용철 변호사는 6일 김성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이며 나를 국사법으로 처벌하라며 증인 출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그러나 김용철 변호사는 6일 김성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이며 나를 국사법으로 처벌하라며 증인 출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그러나 김용철 변호사는 6일 김성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이며 나를 국사법으로 처벌하라며 증인 출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그러나 김용철 변호사는 6일 김성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이며 나를 국사법으로 처벌하라며 증인 출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그러나 김용철 변호사는 6일 김성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이며 나를 국사법으로 처벌하라며 증인 출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그러나 김용철 변호사는 6일 김성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이며 나를 국사법으로 처벌하라며 증인 출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그러나 김용철 변호사는 6일 김성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이며 나를 국사법으로 처벌하라며 증인 출두 거부 의사를 밝혔다.